

만남

2016 11월
통권 142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곤경 속에서 신뢰하는 이의 기도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52~154 -----	8
기도 소개	구원의 역설 _____	13
나눔	판공성사 _____	14
찬양	왜 -----	15
공동체 소식	_____	16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19
우리들의 모습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난민 수용국

수많은 실향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그들의 노력에 연대하려는 이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사제와 평신도의 협력

본당의 사제와 평신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년 표어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라'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쁨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고개를 숙이며)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월은 위령(慰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위령(慰靈)의 달인 11월의 첫날을 ‘모든 성인의 날’로 기념합니다. 성인(聖人)이란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천상에 머무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천사가 거룩합니까?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사람이 거룩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손수 목수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셨고 이웃들의 가재도구도 고치거나 손보아 주었습니다.

출가(出家)하신 이후로는 머리 돌 곳조차 없는 무소유(無所有)의 떠돌이로 사셨지만, 병들고 상처 받은 사람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쓰다듬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과 나병환자들과 불구자들이 그분 안에서 안식(安息)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정화(淨化)하시기 위해 단죄(斷罪)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욕망의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天命)에 귀를 기울이시고자 늘 기도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가 되십시오.

당신은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성인(聖人)이 되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곤경 속에서 신뢰하는 이의 기도(시편 31.2-9)**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저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소서.
- 주님, 참으로 당신만이 저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신뢰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3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1. 2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3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4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5 그들이 숨겨 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6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 7 저는 허황된 이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 8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어
제 영혼의 곤경을 살펴 아시고
- 9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낸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구원이 삶의 풍요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안에서 곤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인생에서는 정말 아무런 곤경이 있을까요? 그렇겠군요. 곤경이라는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란 그리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저 역시 곤경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이나 곤경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인 결심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목자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자 누군가에게 편지 한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지나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서더니 내가 장애인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거로웠겠지요. 두 번째 택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대, 네 대... 열 대 이상의 빈 택시가 지나갔고 나는 늦은 밤까지 길바닥에 버려진 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저 택시를 운전하는 아저씨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밤에 장애인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어루만져 주세요.”

편지를 다 읽을 때쯤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았다고 하네요. 위로의 눈물이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힘” 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곤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했던 성경속의 많은 인물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장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준주성법 제 2 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교리 152

제11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1 예수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적다. 그분의 위안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시련을 살피는 사람은 적다. 그분과 잔칫상을 나누려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을 위하여 어떠한 고통이라도 겪겠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쪄낼 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수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곤란을 당하지 않는 때만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리고 그분께 기도하지만, 자기가 위로를 받을 때만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잠깐 그들을 떠나실 것 같으면, 금세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2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위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번민이 있다 하더라도 위안을 누릴 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찬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위안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찬미하고 항상 감사한다.

3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여 자기의 편익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섞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위안을 찾으려는 사람은 품팔이하는 사람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자기의 편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느님을 섬길 만큼 충실한 사람은 다 어디 갔는가?

4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 만큼, 영혼의 일에 열중한 사람은 드물다. 정말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을 내버린 사람은 다 어디 있는가?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잠언 31,10)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속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다지 장할 것이 없다. 학문을 다 연구했다 할지라도 아직 멀었다. 큰 덕행이 있고 뜨거운 신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났다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벗어 버리며, 사사로운 사랑을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5 비록 중요한 일이라 할 만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라.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루카 17,10)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참으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윗 임금과 같이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시편 25,16)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자기를 끈지에 두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이는 없고, 더 권세 있는 이는 없으며, 더 자유로운 이는 없다.

교리153

제12장 왕도인 거룩한 십자가

2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두려워하는가?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있다. 십자가에는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 스며 있고, 마음의 힘이 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가장 높은 덕이 있고, 완전한 거룩함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도 영생의 희망도 없다. 그러니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앞서 나아가시어(요한 19,17 참조) 네가 걸을 길을 내셨으며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는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 그분의 영광도 나누게 될 것이다.

3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십자가 위에서의 너의 죽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보아라. 거룩한 십자가의 길과, 또 날마다 극기하는 일 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참다운 마음의 평화로 인도하는 다른 길이 없다. 네 뜻대로 어디든지 가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찾아보아도,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고상한 길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더 안전한 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마련해 보아도, 좋든지 싫든지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항상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네 육신이 괴롭든지 혹은 영혼이 번민을 느끼든지 할 것이다.

4 너는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너 자신이 너에게 괴로움이 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거나, 덜어 낼 수 있는 묘약이나 위로는 없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네가 위로 없이도 고통을 극복 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시고, 너 자신을 오직 당신께 맡기기를 바라시며, 고통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도록 힘쓰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사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는 항상 너와 같이 가고, 너 역시 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네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위로 올려다보고 아래로 내려다보라. 밖으로 나가 보고 안으로 들어와 보라. 그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내적 평화를 누릴 마음이 있고 영원한 월계관을 얻을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5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네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이다. 비록 이 세상은 아닐지라도 저곳에서는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십자가는 네게 짐이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참아야만 할 것이다. 십자가 하나를 내버리면 분명히 다른 십자가를 만날 터인데, 아마 그것은 전보다 더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154

제12장 왕도인 거룩한 십자가

13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이는 네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하느님의 성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으며, 다른 이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모범이 되겠는가! 인내하는 이를 칭송하는 사람은 많으나, 인내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이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생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만한 고생쯤은 기꺼이 못하겠는가!

14 우리가 죽어 가는 생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에 대하여 죽을수록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 네게 더 유익한 것도 없으며,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것도 없다. 많은 위로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겪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택하라 하면, 고통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성인들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와 성장은 즐거움과 위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괴로움을 잘 참아 견디는 데 있다.

15 고통을 겪는 것보다 사람의 구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표양으로 보여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하게 권유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 14,22 참조)

비안네 신부

구원의 역설

주여,
 당신은 우리를
 성령의 거처로
 만들고자 육화하셨습니다.
 우리를 높은 데로 데려가기 위해
 인자하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당신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주시고자
 당신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병고를 낮게 하시고자
 당신은 온갖 고통을 견뎌 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려고
 마지막 죽음까지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레고리우스(6세기)



판공성사의 특별한 의미는?

판공이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판(辦)은 힘쓸 판입니다. 공(功)은 공로 공입니다

힘써 공로를 쌓아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향금 유향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대림 또는 사순기간에 선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준비합니다. 또한 집안에 대사(大事)를 앞두면 집안사람들은 그 대사가 잘 치러지도록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판공성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축복(축제)을 앞두고 영적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는 언제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의 개선은 축제의 가장 품위 있는 옷이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부활과 성탄을 준비하면서 받은 고해성사를 판공성사(辦功聖事)라고 합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 힘써 노력하여 공로를 갖춘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공로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교리찰고(敎理擦考 교리문답)가 있었습니다. 두 축일을 앞두고는 성사를 받기 전 교리시험을 거쳐서 성사표를 받은 다음 고해소에서 이 성사표를 사제에게 내밀고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교리시험이 많이 생략되었지만 그래도 그 중요성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큰 축제일수록 그 준비도 큼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나 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나 없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요즘 판공성사를 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라고 한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적당히」입니다.

은총이 클 때는 그 준비도 중요합니다. 판공성사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348

왜

최택헌

G D/F# Em Em7/D C G/B D7/A D

왜 슬퍼 하느 냐 왜 걱정 하느 냐 무

G D/F# Em Am D

얼 두려워 하느 냐 아무 염려 - 말아 라

G D/F# Em Em7/D C G/B D7/A D

큰 어려움에 도 큰 아픔있어 도 이

G D/F# Em D C D7 G

젠 아무 걱정 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 리

C D7/C Bm Em C D G G7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 - 라 내가 너를 지키 리 라

C D7 G Bm/F# Em D C D7 G

실망치 말고 - 나를 보 아 라 나는 너의 하느님 이 다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St. Silvia)	김권최 점우 최효 임정	선애 진희	17일	(헝가리) 엘리사벳 (St. Elizabeth)	허(김)영란 김에리자
5일	(신약) 엘리사벳 (St. Elizabeth)	송오박 욱세민 최백경 한경미	자숙 주화 자미	22일	체칠리아 (St. Cecilia)	김애란 이영석 이희민 신현숙 김은정 김효숙
10일	레오 (St. Leo I)	최김 장현	용일	30일	안드레아 (St. Andrew)	김영경 권지연
17일	빅토리아 (St. Viktoria)	김귀구 자속	속옥		안드레아스 (St. Andreas)	김삼용 김성곤 허길조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추연구(B)	22일	세실리아 (마리세실)	조영실(B) 박샘솔(B) 최모란(B)
16일	젤두르다	김순자(B)	24일	플로라	유혜선(B)
17일	엘리사벳 (St. Elizabeth)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 11월 성가번호

11월	입 당	봉 헌	마 칩
6일	227	219	229
13일	450	213	452
20일	73	511	75
27일	88(2)	510	91

❖ 11월 미사 전체 봉사자 ❖

1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2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위령미사		
6일	이수용(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세실리아)	이현묵(요셉) 곽케빈(요셉)	2구역
13일	김만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윤예진(모니카) 허선애(임마누엘라)	주일학교 복사단	3구역
20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4구역
27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허길조(안드레아스) 이명자(가말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청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9월 25일	10월 2일	10월 9일	10월 16일
계(€)	210.35	238.16	447.70	206.8

❖ 자진헌납금 ❖

2016년 9.25 — 2016년 10.16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박귀동, 정마리아, 정정숙, 신옥희, 김형웅, 최장용, 최승진, 김기연, 김건, 김경미, 김민수, 이수웅, 배성우, 김용일,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이석우, 이정은, 이종하, 이중지, 이공종, 이수현, 안지영, 육종인, 한선지, 현영애, 손수희, 박종래, 박성아, 진윤희, 강순행, 강신행, 최순남, 민경화, 윤예진, 서세원, 심동근, 한말조

구좌입금 :

강일남, 김대현, 김유석, 김동수, 김부남, 김진호, 김치수, 김원자, 아일링호프 정숙, 남궁 춘배, 백정선, 최성자, 최화영, 최현봉, 오옥수, 홍경영, 허두욱, 허길조, 허채열, 광케빈, 방조 영자, 권지연, 이상봉, 이명원, 이성원, 이영원, 서유미, 김수혜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미사 가운데 연령회의 주관으로 연도가 이루어집니다.

3. 11월 2일(수요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장소 : Ohlsdorfer Friedho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aße 756 22337.

시간 : 11:00 미사.

4. 11월 13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생각하시며 1년의 시간이 감사와 축복이 되도록, 또한 성실과 희망을 봉헌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 회장님께서 한국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주일 강론을 합니다.

5. 주임 신부님께서 11월 25일(금) - 27일(주일)까지 판공과 미사를 위해서 오슬로 공동체를 다녀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오슬로 공동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6. 예비자 교리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방은일, 황태엽, 한규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7. 11월부터 지방 공동체의 판공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신자분들께서는 성사에 가까이 계심으로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8. 11월 26일(토) - 27(주일)은 한독 바자회입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29일(주일)미사는 14:00에 봉헌 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합시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11월 브레멘 정기미사는 윤 프란체스카 자매님 댁에서 가정미사로 봉헌 합니다.
3. 11월과 12월에 은총의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0월 29일 토요일 17:00 최한우 바오로, 김혜경 아그네스님 댁에서 10월 묵주기도 성월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2016.10.14 성모축제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아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1 월 중 행사 예정표 (위령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모든 성인 대축일		
2	수	위령의 날	위령 첫 재미사 / 묘지미사 Ohlsdorfer friedhof Kapelle 13 Fuhlsbuttler Straße 756 22337	위령회/전례부 주관 11:00미사
3	목	연중 제31주간 월요일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4	금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복음 나누기 기도회1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연중 제32주일	사목협의회	
7	월	입동		
8	화			
9	수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10	목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11	금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3	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15	화			
16	수			
17	목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21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22	화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소설		
23	수			
24	목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연령회	
25	금			주임 신부님
26	토		한독 바자회 - 27일 주일	오슬로 공동체 방문
27	일	대림 제1주일	바자회 / 14:00미사	
28	월			
29	화			
30	수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